



4면

고졸자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성과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음 11월 22일) 제3162호

대표전화 (063)288-9700



14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소公式'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손을 맞잡고 출범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 '미래 전북발전 동력' 2024년 국책사업 발굴

하이퍼 커넥티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등  
도, 전문가 자문·중간보고회 등 거쳐 26개 확정

전북도가 앞으로 전북발전의 동력이 될 2024년 국책사업 26개를 발굴했다. 도는 1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등 지휘부를 비롯해 전북연구원 연구진 국책사업 발굴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책사업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책사업발굴단은 지난 2월부터 전문가 자문,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최종 26개 사업을 이날 발표했다.

발굴된 국책사업은 신산업경제, 농업농촌새만금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 환경인전 등 5개 분야 26개 사업 총 4조3,098억원 규모이다. 주요 발굴사업으로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연계하기 위해 하이퍼 커넥티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과 농어촌 특화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수소생태계 강화 H2 빌리지 조성 사업 등(6건, 4,850억원)을 발굴했다.

또, 새만금 2권역 항만경제특구와 그린수소복합단지 매립을 동시 착수해 적시에 매립공사 완료를 위한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공공주도 매립, 첨단스마트팜 온실 구축과 육묘장 농자재 및 에너지 공급단지, 가공·저장시설,

교육·연구·홍보시설 조성을 위한 새만금 미래형 첨단온실 조성 사업 등(7건, 1조3,000억원)이다.

문화관광콘텐츠에서는 장예예출신의 문화활동 지원과 향유를 위한 지역거점 국립예술 표층공연장 건립, 근대역사거리공간 조성 사업 등(5건, 6,274억원)이 발굴됐다.

이밖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되어 앞으로 사업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추가 보완 후 구체화해 관계 중앙부처, 국회 등과 협의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미래성장 동력이 될 국책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별 우리도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정부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최종 선정된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은 5개 분과(신산업경제, 농업농촌새만금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 환경인전) 139명으로 구성됐으며, 새정부 정책기조 및 민선 8기와 연계한 대규모 국책사업, 지역특화 및 강점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2월 구성됐다. /김경수 기자

## '1기업-1공무원 전담 시스템' 본격

도, 기업 규제·애로사항 발굴 적극 해소 위해 시행  
도지사 등 지휘부도 현장간담회 통해 소통기회 확장  
김관영 도지사 "전북 기업 제2 전성기 만들어 낼 것"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적극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 공무원들이 현장 속으로 뛰어든다.

전북도는 도내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 공무원들이 기업을 1:1로 전담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기업 대표 기업애로해소 자문단 전담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출범식'을 가졌다.

전북도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지원시스템은 기업의 전담공무원이 주회 유선, 월1회 방문 면담을 통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규제를 발굴하여 해결책을 찾아나간다.

또 중앙부처, 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금, 기술, 수출·판로 등 각종 기업지원정책 안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도 성장사다리 선정기업, 매출액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사자 10인 이상의 성장 초기단계 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 500개 기업이 참여하며, 도청 사무관 이상 간부와 기업지원부서 직원 500명이 전담 공무원으로 나선다.

기업경영의 어려움, 각종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전담 공무원을 소 통창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요사안은 도지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담공무원들의 모든 활동은 기업 중심으로 전개하고 사전에 기업과 협의의를 거쳐 기업이 정한 날짜에 방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담공무원 500명은 지난 11월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 기업 CEO를 비롯 기업지원 유관기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기업방문 에티켓 및 전라북도 기업지원정책 과정으로 구성된 기업지원실무 교육과정을 거쳤다.

전북도는 1기업-1공무원제와 더불어 도지사 등 지휘부 주재로 산업군별,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병행해 기업과의 소통 기회를 넓히고 기업애로해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방해가 되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이다"며 "기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속도감 있게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전북에서 기업들의 성공신화가 이어지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도, 내년 농촌축제 공모사업 '전국 최다'

2023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전라북도가 최다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전국 143개 마을이 신청했고, 총 64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으며, 전북도는 10개 마을(계속 5, 신규 5)이 선정됐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마을단위 축제를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5년 이상 지원 축제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축제 목적의 적합성, 주민참여도, 프로그램 구성 등 내용의 적절성, 추진 주체의 수행의지·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속 지원 축제는 서면평가, 신규지원 축제는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김경수 기자

## 자치경찰위, 전북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정책포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1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형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셉테드)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전북 셉테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해 1부 기념행사 세션, 2부 발제와 정책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기념행사 세션에는 김관영 도지사, 강희수 전북경찰청장, 김광호 지원봉사센터 이사장, 박경민 한국교통방송 전북본부 사장과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치경찰 유공자 표창, 범죄예방 다짐 퍼포먼스를 통해

주민-기관간 셉테드 추진 의지를 다졌다.

2부 정책토론에서는 이형복 한국셉테드학회 부회장이 발제를 맡아 '물리적 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1세대 셉테드'에서 벗어나 '주민참여 및 친환경·하이테크를 융합한 3세대 셉테드' 디자인을 제시하면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논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동필 건축공간연구원 셉테드 센터장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